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학생들...

인천석정중 '행복 Do Dream 진로캠프' 진행

“행복이 가득한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석정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력과 인성을 갖춘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석정중학교(교장 최희삼)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진로체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7월 1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복 Do Dream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1교시~6교시까지 학년별로 다양한 주제 아래 ‘미래강연, 미래토크, 대학생멘토링, 전문가직업인체험, 학교코칭, 섹트 & 토탈공예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1, 3학년은 1, 2교시에 ‘꿈지도 작성하기’를 통해 진지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과정을 담아 가는 활동을 함으로써 한층 더 구체적인 진로방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학년은 1, 2교시에 석정중 졸업생으로 구성된 ‘대학생멘토링’을 통해 학과탐색과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방법 등을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직접 전해 듣고, 선배 배간의 관계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학년은 3, 4교시에 진행된 ‘7인7색 전문가 직업인체험’에서 각 분야 직업인들의 실제적인 활동상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1학년은 2~6교시에 강당에서 ‘미래사회의 변화하는 직업세계’라는 주제 아래 미래강연, 미래토크에 참여했다. 학생교육원 강사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2학기 자유학기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됐다.

3학년은 2~4교시에 이뤄진 ‘학교코칭’ 프로그램에서 고교 진학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법을 배워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2, 3학년은 5~6교시에 섹트 & 토탈공예 진로체험을 통해 카페디저트, 소플라피에, 제과제빵, 파티세, 천연화장품, 펠트, 통가죽공예 등에서 관심 있는 체험만으로 장소를 이동해, 체험과정을 통해 만들고 싶었던 음식과 공예품을 만들어 만들어 보고 시식도 하면서 접근 비전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강연, 미래토크에 참여한 1학년 전교 학생은 “미래강연을 통해 앞으로 변화해 갈



미래사회를 미리 접하고 그에 대비하고 준비해 가는 진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미래토크에서는 미래의 직업세계에 현명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계기로, 꿈을 향해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정섭 교장은 “우리 학교 교훈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진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며, 진로체험 후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자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진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용성 기자 as@



세계화시대 다른 나라 문화 이해하다

인천남부초, 중국 사천성 남중 여성·유주초 문화교류행사 개최

인천남부초등학교(교장 김진용)는 지난 7월 14일 송빛관에서 중국 사천성 남중 여성, 유주 초등학교의 중국교류단 학생들의 방문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문화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인천관광공사 및 국제문화관광 교류협회, 인천남부초등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자매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인천남부초 학생들에게는 중국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인천남부초 학생들은 영어노래 부르기, k-pop댄스, 태권도 등 그동안 동아리 활동으로 갖고 있던 공연을 선보이며 환영인사를

견넸고, 오성, 유주 초등학교들도 중국 무용 및 노래부르기 등을 통해 환영에 답하는 등 문화공연을 했다.

또한, 남부초의 특색인 포크댄스를 함께 배우며 더 친해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태권도 체험, 명랑운동회, 신년교향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했다.

김진용 교장은 “중국교류 교육활동은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친 학생들이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국제적인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용성 기자 as@

과학교육 우수학교로 발돋움하다

인천부개교,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서 좋은 성적 거둬

부개여자고등학교(교장 배경자)는 제2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최종 심사결과 5명의 학생이 출품하여 동상 이상 4명(2-8 김연진, 2-9김성정, 2-10 김재림, 2-11 김기과), 최우수상 1명(2-12 노서영)의 수상 결과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과학교육 우수학교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좋은 수상 결과는 2학년 교육과정에서 개설된 ‘과제연구’ 과목의 내실있는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과제연구’ 과목은 보충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일반과목이 아니라 특목고에서 주로 개설하는 심화과목이다.

부개고에서는 2학년 전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학생들을 위해 사회교과와 정치·경제, 사회, 역사, 도덕 과목 중 1개 과제연구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에예를 학생들을 위해 과학교과 중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1개 과제연구 과목을 선택하여 2시간씩 이수하도록 편성 운영하고 있다.

과제연구 수업 운영은 수업시간에 보고서나 발명품 제작 등 학생 개인별로 관심

있는 영역을 선택하여 한 학과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 또는 조별로 추진하게 하고 있다. 관련 교내대회를 거처거나 외부 대회에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출전시키고 있다.

이번 제2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수상을 거둔 학생들은 ‘생명과학’ 과제연구를 이수한 학생들, 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발명품제작서를 만들고, 그림판으로 설계도를 그리며 친구들의 계획서와 자신의 것을 비교해보고 기존의 것 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검색해보면서 발명품을 대하는 능력이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었다.

계획서가 완성되면 교사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중치 않았던 계획서가 차츰 다듬어지서 제출할 때에는 제법 그럴듯한 계획서가 되었다.

한편 자신감과 능력을 얻은 학생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수업 시간에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성생명과학기술로서 주위하고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전

국 여성생 생명과학 탐구대회’와 인하대에 서 주최하는 ‘Wiset Science Festival’에 1개 이상의 계획서를 제출(2016. 7. 8-7. 9일 마감)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과수업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물론 교내 및 교외 대회와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수상반면에 과학교육 부문에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문화 교육감상(3-9 구민경), 제36회 인천광역시학생과학전람회 우수상(2-12 송혜정, 황수현), 제24회 인천광역시학생과학실험대회 동상(2-8 김재은, 2-11 이나혜) 등의 수상 실적을 냈으며, 성취동기가 부여된 결과 부령도서관에서 운영하는 2016 고등학교 지식재산권 운영교과 공모 선정되었으며, 희망학생이 많아 학교 자체적으로 1개 반을 더 편성하여 운영 준비중이다.

또 과학동아리 5개가 조직되어 연인원 13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부령구청 소년수련관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부령구민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활동에 기여하는 등, 명실상부 과학교육 우수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용성 기자 as@

경기도교육청, BTL 학교

운영·관리 효율화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복합센터에서 BTL학교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김장영 시실과장과 지역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는 학교·교육지원청-BTL 운영 3자가 BTL로 운영·관리되는 신실학교를 대상으로 최상의 학교 사설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향후 ‘술밭처럼 정담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술밭처럼 정담회’는 8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10개 모듬으로 구성해 학교,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BTL 운영사 등 관계자 3-400여 명이 참여한다.

BTL학교의 사설을 유지·관리는 민간운영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관리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BTL업무 이해 부족으로 파쇄성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교육청의 정담회를 통해 앞으로는 상호 소통과 협업을으로 BTL학교 사설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에서 그동안 겪어왔던 담당자를 해소해 현장 중심의 패러다임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드세요!!!

1. 화끈하게 매운맛
2. 감칠맛나게 기름맛
3. 순하게 알싸한맛

유식은 천덕꾸러미
저희는 좋은재료와 정성으로

가족모임 단체모임 회식회식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방로 171, 1층 (옥련동) 흑민초교 청문삼
예약문의 (032)834-7740 단석식 및 대형주자장반비

낙지요리전문점

1,000원부터

행복한 낙지

산낙지전골, 산낙지찜, 산낙지전골, 산낙지찜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전도 준비되었습니다

834-7740

조금 더 가까워진 우리 사이

부원여중, 중국 신진외국어학교 교사·학생 방문

부원여자중학교(교장 임장식)는 지난 7월 8일 중국 신진외국어학교 교사와 학생이 방문해 문화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중국 허북성 강박외국어 학교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두 나라간의 문화교류가 진행됨을 알렸다.

우선 8일 13시에 도착한 신진외국어학교 교사 1명과 학생 20명은 부원여중의 스마트 교육을 기반으로 한 2·3학년 영어 수업을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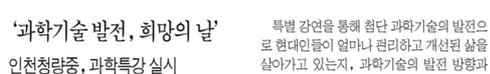
관하고 영어전용실로 이동해 부원여중 국제교류단 학생 17명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양교의 학교 안내 홍보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교의 시간을 갖고 부원여중 국제교류단이 준비한 한국 문화 소개와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신진외국어학교 학생들은 한복과 옷놀이 등에 관심을 보이며 웃음이를

함께 즐겼다. 이후 학생들 간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 촬영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에 참여한 3학년 이상 학생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 문화를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들 중국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며 옷놀이를 재미있어 해 함께 하는 우리도 매우 즐거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임장식 교장은 “부원여중은 한·중 청소년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스마트 교육의 기반 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 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인용성 기자 as@



‘과학기술 발전, 희망의 날’ 인천청량중, 과학특강 실시

청량중학교(교장 박종진)는 7월 13일 과학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진로동아리인 미래과학자반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과우회에서 실시하는 ‘과학 특강’이 과학실 에서 실시됐다.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이자 현 강남자연봉사센터 교육강사로 재직 중인 박종진 이사가 ‘과학기술 발전, 희망의 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과학에 대한 흥미가 많은 과학동아리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인을 직접 만나 특강을 듣는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의 장단점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유익한 시간 이었다.

인용성 기자 as@